

### 3. 사회문화

#### □ 민족 구성

- 플랑드르계: 58%
- 왈롱계: 31%
- 혼혈 및 기타: 11%

#### □ 언어

- 플란더스 지방: 네덜란드어
- 왈로니아 지방: 프랑스어
- 브뤼셀: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공용
- 독일어 공동체: 독일어

#### □ 종교

- 로마 카톨릭교: 75%
- 기타: 25%

#### □ 한국 문화 유입 정도

##### ○ 개황

- 한/벨기에 문화교류는 1980년 3월 양국간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위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10여건의 학술.문화 행사를 비롯하여, 루방대 등 벨기에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해 유학생, 연구원, 훈련생 교류로 확대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브뤼셀 BOZAR 예술센터는 한·벨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토대로 2008.10.8 ~ 2009.2.28까지 BOZAR 예술센터에서 한국의 전통(불교, 유교, 민속신앙)은 물론 현대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국페스티벌 "Made in Korea"를 개최함
- 이 페스티벌에서는 금동반가사유상 등 국보 4점을 포함한 불교미술 특별전 "The Smile of Buddha"와 백남준 "백팔번뇌", 김수자 연등 2000점 설치 작품 "Zone of Zero"등 전시회는 물론 국립음악원의 "종묘제례악", 비보이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최고의 문화예술을 5개월에 걸쳐 소개하게 됨

#### ○ 문화교류 현황

- 2004년: Woluwe St. Pierre 한국 주간 행사에서 한국 영화 6편 상영, 전통 공연, 사진전, 전통매듭 강습, 동화구연, 음식 시식등
- 2005년: 한류확산 차원의 한국문화 소개. 난타 벨기에 순회공연, 서울예술단 브뤼셀 공연, 월레 한국 영화 시사회, 브뤼셀 국제 판타지 영화제 참가
- 2006년: 한국 문화 소개 행사. 류경아 고전 및 현대무용,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세미나 개최, 도예가 이윤경 개인전, 방혜자 화백 브뤼셀 개인전, 원성스님 브뤼셀 전시회, 벨기에 난타공연
- 2007년: 브뤼셀 국제 판타지 영화제, 방혜자 화백 브뤼셀 개인전,

한국 풍물패 공연, 허트리오 공연

- 2008년: 사물놀이 강습, 이우환 전시회, 한국 페스티벌 개최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에 대해 알림. 370여건의 언론 보도
- 2009년: 유럽의회내 한국소개 행사 “Letter from Korea”, 서울대학교 국악과 순회공연, 한-벨 합작 무용 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등
- 2010년: 아이티 지원 자선음악회, “들소리” 벨기에 EU 의장국 취임 축하공연 등

○ ‘브뤼셀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한국 영화 <복숭아 나무> 초청 (‘13.4월)

- \* 브뤼셀국제판타스틱영화제 : ‘79년 시작. 영화의 사회적·문화적 측면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영화를 통한 상상을 고무하려는 취지로 기획. 매년 약 100편의 장편영화와 40~50편의 단편영화 상영